



“결혼은 마흔 전에”

‘연기·연애·예능’ 서른셋, 이승기의 고민

가수 겸 배우 겸 예능인 이승기. 지난 2004년 전국의 누나들을 설레게 한 소년 이승기는 어느새 데뷔 15년차 ‘반능’ 엔터테이너가 됐다. 그동안 가수, 배우, 방송인 세 개의 타이틀을 부끄럽지 않게 이름 앞에 새기며 스타로 사랑받았다. 군 전역 후 그는 특유의 성실과 열정으로 자신의 연예활동 2막을 열었다. SBS ‘집사부일체’와 tvN ‘화유기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에 이어 SBS ‘베가본드’로 ‘액션배우’로서 변신에 성공했다. 최근 종영한 ‘베가본드’에서 조카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친 남자 차담건은 그간 ‘업친야’ ‘모범생’ 등의 이미지가던 이승기에게 새로운 모습을 추가했다. 드라마 역시 13%(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달성하며 필모그래피에 성공의 기록을 추가했다. ‘베가본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승기를 만났다. 올해로 만 서른 셋, 연예인 이승기와 인간 이승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담담하게 털어냈다. ‘너무 잘 해내려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시간을 지나 다소 지친 것도 있다면서, ‘내려놓음’의 중요성도 깨닫고 있다. 연예인 이승기와 서른셋 남자 이승기의 이야기다.

- ‘베가본드’를 잘 마무리한 소 감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분 좋 게 방송을 쫓는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다. 1년 넘게 촬영하면서 이게 과연 언제 방송될까 생각 했는데 종영을 한다고 하니 설 레기도 한다. 다행히 ‘베가본드’ 를 시도하기전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수치적으로도 성과가 좋았다.

▶또 드라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다양한 반응을 느끼는 것 같다. 확실히 시청률과 체감 반응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나 다른 채널로도 방송이 되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 수지와의 멜로는 어땠나. 두 번째 호흡인데.

▶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드라마가 멜로가 들어갈 틈이 없다. 조카가 죽어서 범인을 쫓는데 멜로까지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 지 않나. 그래서 멜로의 깊이나 농도가 중요했다. 수지와는 친하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리 허설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무 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멜

로는 액션신보다 조희수나 반응이 더 폭발적이라. 농담으로 ‘죽어라고 액션했더니 여기서 반응이 온다’고 하기도 (웃음) 작 가님이 ‘이승기와 수지를 데리고 멜로를 안 쓰면 직무유기다’라고 하시더라.



- 가수 활동을 언제 오래 됐다.

▶사실 군대를 다녀오면서 목 이 많이 상했다. 마음처럼 돌아오 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서 요즘에는 요가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수 활동을) 꿈 꾸는 부분도 있지만 구상 단계가 아니라 스타트되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가 수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다. OST 등을 부르지 않은 건, 노래 를 다시 부른다면 싱글보다 오래 기다리고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인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콘셉트를 하 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다.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이 준비돼야 하지만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 넷플릭스 ‘범인의 바로 너!’ 시 즌2에도 함께 했다.

▶(유)재석이랑이 계셔서 너무 좋았다. 오랜만에 예전의 이승기 가 하던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딱 내 것만 하면 된다. 스나이퍼 의 역할로 임하는 거라 힘이 들지 않고 즐겁게 했다.

- ‘집사부일체’가 벌써 100회를 앞두고 있다. 드라마와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텐데 진정성있게 임 하고 있더라.

▶(웃음) 내게는 예능이 연예 인으로서의 일탈이자 활력소인 것 같다. 촬영장에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노는데, 사실 내 일상에

서는 그렇게 웃을 일이 없다. 예 능을 촬영하면서 웃고 그렇게 얻 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고 또 나를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집 사부일체’가 이제 100회가 다 되 어 간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망가질 수도 있고 액션도 해볼수 있고, 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점이 좋다. 아팠든 사부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초반에는 시즌제로 가야 하나 고민도 했는 데 일요 예능이 사랑을 받다 보면 그렇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 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 다.

- 실패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 다. 위기가 오기도 하나.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연예인이 그 시기가 다 올 거다. 나도 루틴이 다르긴 하지만 데뷔 하고 한 번, ‘1박2일’을 만나기 전에 한 번, 군대가기 전에 심하 게 한 번 (위기가) 왔다. 그 다음 이 요즘인 것 같다. 느낌이 조금 다르다. 지금은 마인드를 다르게 하려고 한다. 한번 심적으로 위기 가 오면 힘이 많이 든다. 외부에 알리기 보다 조용히 이겨내야 하 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체 력적으로도 부친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뉴스1

카라 출신 강지영, 키이스트 전속계약 “국내 본격 연기 활동”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강지영 이 키이스트와 손잡고 국내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간다. 강지영과 전속계약을 맺은 키이 스트는 2일 “강지영은 2014년 가 수에서 배우로 전향한 이후 일본 에서 조연부터 착실히 필모그래피 를 쌓으며 주연까지 꽤한 성장형 배우”라며 “강지영이 국내에서 연 기자로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 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카라의 멤버로 가 요계에 데뷔한 강지영은 발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 다. 이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을 펼치며 가수로서 정상의 자리 에 올랐고, 2014년 더 큰 도약을 위해 배우로 전향했다.

강지영은 자신만의 유니크한 감 성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해외에서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



히 언어의 장벽에도 끈질긴 근성 으로 외국어 실력을 쌓아 조연에 서부터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또 한 강지영은 이전과는 달리 한층 성숙해진 이미지와 분위기로 국내 작품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라이언 레이놀즈 “2번째 내한, ‘복면가왕’ 출연 못해 아쉬워”

내한한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번에는 ‘복면가왕’ 에 출연하지 못해 아쉽다”고 인사 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2일 오전 서 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영화 ‘6 언더그라운드’ (감독 마이클 베이)의 내한기자회견에서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 이번 방한을 기뻐하 고 있다. ‘복면가왕’ 출연 못해서 아쉽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6언더그라운드’를 소개 하는 자리라 넷플릭스 ‘6언더그라 운드’를 즐겨달라. 남성적이면서 도 스케일 큰 액션이 담겨있다”고 자신의 영화를 소개했다.

또 “아직은 두번째 방문인데 어 젓밤에 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모 르겠지만 둘러보고 살펴보고 싶다. 항상 서울 올때마다 환영해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언더그라운드’는 애초에 존 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의 모 든 기록을 지운 여섯 명의 정예요 원이자 스스로 고스트가 된 이들이 펼치는 지상 최대의 작전을 담 은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2일 서울 종 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넷플릭 스 영화 ‘6 언더그라운드’ 내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6 언더그라운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기록을 지 운 여섯 명의 정예요원, 스스로 ‘고스 트’가 된 그들이 펼치는 지상 최대의 작전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데드풀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라이언 레이놀즈는 각기 다른 능력의 정예요원들을 한데 모아 지상 최대 작전에 투입하는 미스터 리한 억만장자 역을 맡았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겨울왕국2
2관	블랙머니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겨울왕국2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6관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7관	겨울왕국2
8관	블랙머니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좀비랜드-더블 탭
2관	겨울왕국2, 좀비랜드-더블 탭, 엔젤 해즈 폴른
3관	겨울왕국2
4관	겨울왕국2
5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6관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